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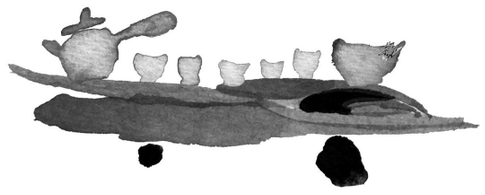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㉒ 법정스님 찻잔

찻잔에 담긴 정성

스님을 뵌 지 이십 몇 년이 됐지만 스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강원도 오두막에 사실 때는 스님의 건강이 염려되어 휴대폰을 구해드리려고 했지만 스님께서 거절하셨다. 스님은 강원도에서 서울에 오시면 주로 길상사에서 손님을 맞았다. 그런 뒤 보원요 김기철 선생 댁을 들렀다 가시곤 했다.

김기철 선생은 법정 스님께서 좋아하는 도예가이자 안사람의 스승이다. 스님은 나를 만날 때마다 "요즘은 보살이 운전을 잘 하는가?"하고 물으셨다. 출가 전 여동생에게 잘 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어서인지 여성에게는 사뭇 애틋하셨다. 여성단체의 소식지 등에서 원고청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시는 것도 그런 까닭인 듯했다. 샘터사에서 발행하는 〈엄마랑 아기랑〉에 주신 글도 마찬가지였다. 읽은 지 오래되어 잘 기억나지 않지만 '과일을 잘 깎는 여성이 살림도 살뜰하게 잘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던 것 같다.

스님께 인사드리러 길상사에 갈 때는 주로 나 혼자였는데 그날은 안사람과 동행했다. 안사람이 스님을 찾아뵙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였다. 길상사 행지실에서 차담을 나눌 때는 길상사 주지스님이 항상 차를 우려내는 팽주(烹主)가 되었다. 스님께서 웃으시면서 갑자기 안사람을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



일러스트 · 정윤경

"무량광보살이 만든 다기를 왜 나한테 가져오지 않지요?"

"예, 다음번에 올 때 반드시 준비해오겠습니다."

안사람은 얼떨결에 다기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무량광은 스님께서 지어주신 법명이었다. 내가 무염이니 무(無)자 돌림으로 짓겠다고 무량광으로 지어주셨다. 안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말했다.

"사실은 진즉 스님께 드리고 싶었지만 차마 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약속했으니 되돌릴 수는 없었다. 안사람은 다관 1개와 찻잔 5개, 수구 1개를 세트로 맞추어서 포장지에 싸두었다. 안사람의 도자기는 김기철 선생 풍(風)으로 찻잔 이름은 '법정 스님 찻잔' 이었다. 김기철 선생이 스님의 조언을 받아들여 만든 찻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였다.

어제 어떤 스님이 안사람의 찻잔을 보고는 술잔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주고 갔다. 찻잔입술이 있는 까닭은 차를 천천히 마셔야 하기 때문. 술은 입안에 털어 넣듯 마시므로 굳이 술잔입술이 필요 없다는 것. 수긍이 가는 설명이었다.

아무튼 안사람은 자신이 만든 다기를 스님께 드렸는데, 어느 날 길상사를 다녀온 사람이 스님의 유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 전해주었다. 안사람은 지금 만든 다기라면 더 좋아하셨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지만 정성을 다했다면, 선심초심(禪心初心)이듯 진실한 마음이 찻잔에 무심코 담겨 있지 않을까 싶다. 〈끝〉

행정수반 교체로 '一新'… 변화 기대 높아

2017 종단 결산

정부 등 전통문화 인식 문제
불교계 적극 대응하며 해결
승려 건강검진 제공 비롯해
미래세대 지원 위한 노력도



올해 각 종단 새 행정수반으로 조계종 설정 스님(왼쪽)과 태고종 편백운 스님(오른쪽)이 선출되면서 내년 불교계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는 불자들이 많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2017년 정유년, 세간은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 이후 장미대선으로 분주했다. 불교계 역시 장자종단인 조계종, 제2종단인 태고종의 행정수반이 교체되면서 분위기를 일신했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표지판 내 사찰명 삭제 논란, 세종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 따른 개신교 반발 등 세간의 전통문화 이해 부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펼쳐졌다.

조계 ·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

올해 가장 큰 종단 이슈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과 태고종의 행정수반 교체였다. 조계종은 지난 8년간 제33 · 34대 총무원장을 맡은 자승 스님에 이어 설정 스님이 제35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했다. 비록 선거과정서 후보들 간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열양상으로 치닫긴 했지만 선거 이후 차츰 안정을 되찾았다. 특히 신임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포항 강진 피해지역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철수에 앞서 목포신항을 방문하는 등 대사회 신뢰 쌓기에 나섰다. 종단 내적으로는 조계사 초하루법회서 대중법문을 하고,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기도 축원을 올리며 신심 증장에 앞장섰다. 현재는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 일반직 종무원 인사를 단행하며 내년 사업을 대비하고 있다.

태고종은 도산 스님에 이어 제26대 총무원장에 편백운 스님이 취임했다. 편백운 스님은 △종단재정 정상화 △기초교육제도 개혁 △권역별 지방 초심원 설치 △사설사찰 보장 △독자적인 대외협력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고, 종단 정상화에 나섰다.

이처럼 한국불교 대표 종단들의 수장이 교체되면서 내년 불교계의 혁신을 기대하는 불자들이 많다. 또한 내년 초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임기도 만료될 예정이어서 대형종단들의 변화된 모습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멸빈자 사면, 종단별 온도차

2015년 서의현 前총무원장 재심파동으로 촉발된 조계종 멸빈자 사면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올해 종정 진제 스님이 사면에 대한 교시를 내리고, 중앙종회서 멸빈자 사면 관련 종헌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거듭 이월되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사면에 대한 종단 구성원간의 이해도 달라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계종과 같은 사면에 대한 논란이 없었던 태고종은 종정 혜초 스님이 내린 특별사면령에 의거해 지난 11월 징계자 복권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태고종은 1970년 창종 이래 2016년까지 종단으로부터 멸빈 포함 각급 징계를 받은 종도들이 일제히 사면된다. 내년 1월 29일까지 사면복권 신청을 받는다.

정부 등 전통문화 인식 미흡 개선

올해 하반기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전통문화 인식 부족으로 인한 불교계와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는 '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 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한국불교 명찰(名刹)들의 이름 등을 삭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침 개정은 10여 년 전에 이뤄진 데다 그동안 문제없이 표지판에 명기됐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놀이공원과 스키장 등 제1 · 2종 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은 고속도로 안내판에 표시 가능해 문화재에 대한 몰이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조계종은 표지판 철거방침 철회와 지침 개정을 촉구하며 "문화유산에 대한 안내를 확대해도 부족한 마당에 있는 것도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철거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철거 잠정연기 결정을 내리고, 국토부가 도로표지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한편 조계종이 세종시에 건립할 한국불교문화체험관도 한차례 홍역을 앓았다. 일부 개신교계 단체들이 '특혜' 라는 억지 주장을 펼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서 시비 예산 20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 이 논란은 조계종과 세종불교계가 적극 대응하고,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억지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면서 해소됐다. 최종적으로 시의회가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지원예산 20억 원을 확정하면서 논란은 사그라졌다.

진각종 창종 70주년 맞아

밀교종단 진각종은 올해 창종 70주년이라는 경사를 맞았다. 이에 '진각 100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진각문화사업단과 국제교화사업단을 신설하며 조직을 재편했다. 한국밀교문화총람 편찬과 더불어 총인원 · 전승원 등을 중심으로 한 '밀교공원화' 를 추진 중이다. 특히 전승원에 공연장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상주공간을 제공하는 등 각종 문화사업 계획을 꾸려 제2의 종단 중흥을 모색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진각 100년 비전 선포식을 겸한 헌공불사를 봉행하고, 서울서 처음으로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조계종 승려복지 '건강검진' 제공

출가수행자의 수행 · 포교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인 건강상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조계종이 동국대의료원과 함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승려복지회 · 전국비구니회 · 동국대의료원 3자 협약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비구니스님들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건강검진서 2명의 스님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이어, 치료를 받아 실효성이 입증되는 등 눈길을 끌었다. 이에 3자 기관 · 단체는 건강검진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의료 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미래세대위원회 출범

2015년 초 조계종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공사에서 처음 논의된 미래세대위원회가 약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마침내 출범했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으로서 청소년 · 청년포교에 앞장서는 심산 스님을 중심으로 스님과 재가불자 등 전문가들이 뭉쳤다. 이들은 출범식과 동시에 청년불자들의 고민 듣기로 첫 행보를 펼쳤다. 청년불자들은 대인관계 · 취업 · 연애 등 다양한 고민을 털어놓았고, 불교계가 이를 귀 기울여 들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위원회는 당분간 이 같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윤호섭 기자



범어사 11개 암자길, '부산 순례길' 선정

부산학연구센터, 종교 성지순례 코스 6選 정리

부산시민에게 쉼과 마음의 안식을 제공하고 종교 화합을 위해 마련된 부산 순례길에 범어사 암자 11곳과 백양산 삼사순례길이 선정돼 눈길을 끈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는 부산의 종교 성지순례 코스인 '나를 찾아 떠나는 부산 순례길' 을 개발하고, 부산학 총서 3권 가운데 1권으로 펴냈다. 부산 순례길 대표 코스는 범어사 11개 암자 길과 백양산 삼사순례길, 천마산 홀리 로드, 순교자의 길, 선교사 미션 루트, 원도심 평화순례길 등 총 6선이다.

범어사 11개 암자 길은 약 12㎞이며 금정산에 위치한 계명암, 청련암, 내원암, 원효암, 대성암, 금강암 등 11곳이다. 아울러 백양산 삼사 순례길은 천태종 삼광사와 전통사찰인 선암사, 부산 모라동에 위치한 운수사를 찾아가는 산속 명상길이다.

부산 순례길 코스 개발 참여자는 박창희 스토리랩 수작 대표와 민병욱 부산대 국어교육과 교수, 성현무 지식 · 문화콘텐츠연구소 대표, 박수인 도보여행가 등이며 지난 3월부터 부산 대표 종교 성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선정했다.

부산발전연구원 김형균 부산학연구센터장은 "부산 순례길은 지친 현대인들에게 명상을 비롯한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종교 간 화합과 소통을 상징하기 위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